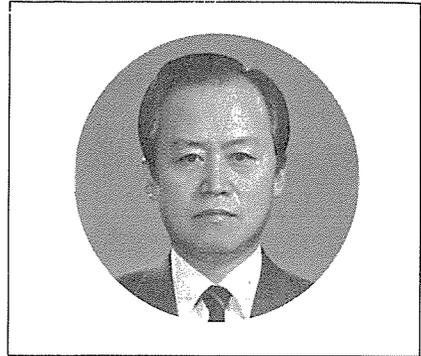




“国家的次元에서 技術自立이룩해야”

- 현대의 電子工業은 산업사회의 주역을 이
- 루고 있는 情報社會의 밑거름이 되고 있
- 으며 반도체 및 컴퓨터산업의 모체로서
-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 하고 있다.
- 196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 전자공업은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
- 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이 사
- 실이나 그동안 기술축적기반이 별로 없는
- 상태에서 조립중심의 노동집약단계를 크
-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 로 접어들면서 기술집약단계로 전환하고
- 있으나 아직 소재공업등의 뒷받침이 미약
- 해 技術自立化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이런 시점에서 오늘의 전자공업이 있기까
- 지 밑거름이 되어온 大韓電子工學會 朴圭



朴圭泰 회장

- 泰회장(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을 만나
-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현주소와 학회의 역
- 할과 기대등을 알아본다.

『반도체 및 컴퓨터 분야는 電子産業의 첨단기술중에서도 총아의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흔히들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되는 반도체산업, 그것을 토대로 하는 컴퓨터산업은 앞으로의 기술세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이고 따라서 그만큼 역점을 두고 개발해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朴圭泰회장은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갖고 보다 과감한 투자와 先進技術의 조기도입개발에 국가적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朴회장은 우리의 전자공업수준이 아직 美·日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져있는 것은 사실이나 T-V, VTR, 음향기등 家電제품기술은 세계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고도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VLSI제조기술, 컴퓨터기술등의 분야는 역사가 일천하고 기술축적기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선진외국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56KD Ram과 1Mega Rom등의 반도체를 생산한 것만 봐도 우리도 노력만 한다면 선진국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세계적으

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두뇌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급두뇌와 세계 유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자공학도들이 머지않아 우리 전자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朴회장은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인 인력자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수년내에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낙관론을 펴다.

朴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전자공학도가 3~4천에 달하고 있으나 이웃 일본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숫자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전

자공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자공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힌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이 매우 중요한데 예전에 비해 응용력을 키우는 실험위주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교육체제가 못된다면서 전자공학분야에서는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人材를 많이 배출해야 하는데 현행교육체제하에서의 주입식교육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한다.

따라서 자체기술개발을 통하여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시점에서 선진기술축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양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위해서 대학에서의 교육수준 향상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축적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차회장은 특히 『학회는 전공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공동관심을 발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학문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그것을 토대로 그 분야의 공업이 진흥하도록 아이디어를 集散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분산되어 있는 전자분야의 잠재능력을 계발해서 하나의 집약된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다.

차회장은 우리의 전자산업이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오기까지 바로 학회가 이분야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학회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됨에 따라 새

로운 지식의 함양은 물론 긴밀한 교류로 급변하는 전자기술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구상,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다.

技術革新의 주기가 점차 단축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선진국의 첨단 및 최신키술을 신속히 소화하기 위해 외국의 저명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국제대회도 유치하는 한편 산하에 「통신」「교환」「마이크로波 및 電波 연구위원회」 등 11개 전문연구회를 구성, 각 분야별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또 바람직한 산학협동 모색을 위해 産學協同위원회를 설치, 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技術강좌를 수시로 개최하여 최신정보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고급 유휴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년퇴직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산업체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을 위해 회원명부를 금년내로 발간, 관계기관에 배포할 작정이며 모든 회원들의 인적현황은 물론 업무처리도 전산화하여 학회업무의 능률화와 체제화를 꾀해나갈 방침이라고.

大韓電子工學會는 특히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4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의 歷史를 한눈에 알 수 있는 「大韓電子工學會 40年史」를 오는 11월경에 발간하고 아울러 기념 논문집과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大韓電子工學會가 창립 40주

년이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학회상을 구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회장은 『이제까지 선배들이 닦아놓은 터전위에서 전자공학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보다 더 활발히 꽃필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차회장은 올해에 학회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현재 1만여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1천명정도 더 확보하는 것과 현재 4개支部 외에 광주, 제주등 지방에 2개지부를 추가 설치해 지방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힌다.

차회장은 끝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는 지금까지의 가치체계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된 情報가 人間生活 전반에 새로운 중요점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情報化社會가 될 것』이라면서 『綜合 情報通信網(ISDN)이 완성되는 2천년대가 되면 사회의 생산성은 증대되고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보다 풍요롭고 안락한 인간생활이 보장될 것』이라고 내다 본다.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더 좋은 생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전자공학자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년기에 접어든 大韓電子工學會의 11대회장을 맡은 朴圭泰회장은 우리나라 전자공학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전자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權光仁 記>